

# I 3 선사 문화

## 01.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

<b>라오통반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오허강 유역의 ① <b>홍산</b> 문화</li> <li>: 채도(원통형 토기), 용 모양 옥기, 여신의 얼굴상</li> </ul>
<b>중원 지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허강 중류 ② <b>양사오</b> 문화</li> <li>: 토기 표면에 무늬를 넣은 ③ <b>채도</b> 제작</li> <li>• 황허강 하류 ④ <b>다원커우</b> 문화</li> <li>: 홍도·회도·흑도·백도, 세 발 달린 토기와 동물 모양 토기</li> <li>• 양사오 문화 + 다원커우 문화 → ⑤ <b>룽산(흑도)</b> 문화</li> <li>• 창장강 하류 ⑥ <b>허무두</b> 문화</li> <li>: ⑦ <b>벼농사</b>를 기반으로 발달, 흑도·홍도, 량주(옥기 등) 문화로 발전</li> </ul>
<b>한반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⑧ <b>빛살무늬</b> 토기 등 제작</li> </ul>
<b>일본 열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⑨ <b>조몬</b> 토기, 여성 모양의 토우, 농경보다는 수렵·어로·채집 생활</li> </ul>

###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

**▲ 홍산 토기**  
라오허강 유역에서 발달한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로,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여신의 얼굴상**  
눈을 청옥으로 만들어 넣은 것이 특징이다.

**▲ 용 모양 옥기**  
용을 형상화한 옥기가 제작되었다.

**▲ 빛살무늬 토기**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대표적인 토기이다.

**▲ 양사오 토기**  
황허강 중류 유역에서 발달한 양사오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로, 물고기 무늬 등이 그려져 있다.

**▲ 다원커우 토기**  
황허강 하류 유역에서 발달한 다원커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다원커우 문화에서는 초기에 홍도가 만들어졌으나 중기 이후 회도, 흑도가 늘어났다.

**▲ 돼지 그림 토기**  
창장강 하류 유역의 허무두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로 당시 사람들이 돼지 등을 가축으로 길렀음을 알 수 있다.

**▲ 조몬 토기**  
조몬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표면에 새끼줄 무늬가 있는 경우가 많다.

### 조몬문화의 토우



사명감 충만!!

# I 4 국가의 성립과 발전

## 01. 청동기 문화의 발전

<b>몽골 초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라시아 초원 및 삼림 지대에서 발달</li> <li>• 청동 무기, 재갈이나 등자 등의 마구, 사슴돌과 판석묘 등을 남김</li> </ul>
<b>중원 지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엘리터우</b> 문화</li> <li>• 황허강 중류 유역에서 발달, <b>청동 술잔</b> 등 제작 → 초기 국가 단계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li> <li>• 상 왕조 : 청동제 무기와 제기 제작</li> </ul>
<b>만주·한반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원전 2000년경~기원전 1500년경 청동기 등장</li> <li>• 비파형 동검, 청동 거울, 반달 돌칼, 고인돌 등을 남김</li> </ul>
<b>일본 열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로부터 벼농사 기술, 청동기, 철기 수용 → <b>야요이</b> 문화 시작</li> <li>• 종 모양 청동기(<b>동탁</b>) 등 청동 제기와 장신구, 철제 농기구와 무기 제작</li> </ul>

### 동아시아 각 지역의 청동기 문화

**몽골 초원**

▲ 사슴돌 ▲ 판석묘

몽골 초원의 사슴돌과 판석묘이다. 사슴돌은 초원 지대에 세워진 거석 기념물로, 표면에 사슴 등이 새겨져 있다. 판석묘는 시신을 안치하고 주변에 여러 장의 판석을 세운 것이다.

▲ 야요이 토기 ▲ 동탁

야요이 문화의 대표적 유물인 야요이 토기와 종 모양 청동기(**동탁**)이다. 종 모양 청동기는 주술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청동 술잔 ▲ 상의 네발 솥

엘리터우 문화의 유물인 청동 술잔과 상의 네발 솥은 주로 제사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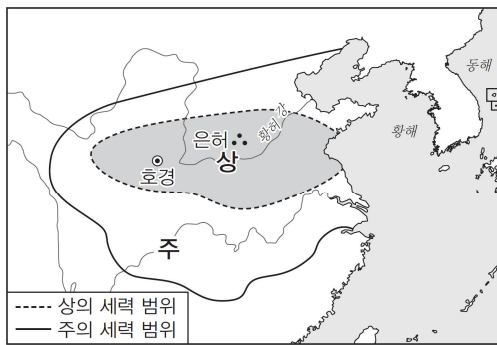
▲ 비파형 동검 ▲ 고인돌

청동으로 제작된 비파형 동검과 지배층의 무덤인 고인돌이다. 고조선 관련 문화 범위를 알려 주는 문화유산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서 주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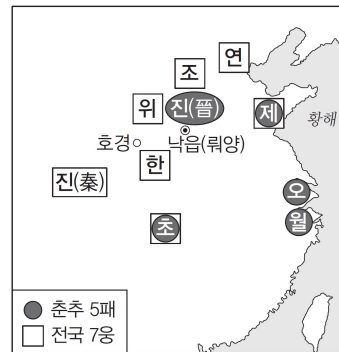
## 02. 국가의 등장

<b>중국 초기 왕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제 무기와 전차를 이용한 정복 활동</li> <li>• 하(夏) : 기원전 2,000년경 <b>황허강</b> 중류 지역에서 성립, 문헌상 최초의 왕조</li> <li>• 상(商) : 기원전 1600년경 성립, 신정 정치, <b>갑골문</b> 사용, 은허 유적</li> <li>• 주(周) : 기원전 1046년경 상을 멸망시키고 호경(鎬京)을 수도로 삼음</li> <li>• 혈연에 따른 종법적 <b>봉건제</b>(왕이 수도와 직할지 통치, 제후가 지방 통치), 천명사상과 덕치주의 강조</li> <li>• 왕과 제후 사이의 혈연관계가 희미해지면서 왕실 권위 약화</li> </ul>
-----------------	---

<b>춘추 전국 시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추 시대 : 기원전 770년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 서북방 유목 세력인 ㉔<b>견융</b>의 침입 → 주가 호경에서 낙읍으로 천도 → 주 왕실의 통제력 약화 → 춘추 5패가 정국 주도(존왕양이)</li> <li>• 전국 시대 : 기원전 403년 주를 중심으로 한 봉건 질서 붕괴 → 전국 7웅 대두(약육강식) → ㉕<b>상앙</b> 등 법가 사상가를 등용하여 부국강병책을 추진한 진(秦)에 의해 통일</li> <li>• 춘추 전국 시대의 변화</li> </ul>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b>정치</b></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㉕<b>군현제</b> 도입 :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각각 군수와 현령 등의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li> <li>•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국강병책(변법) 실시</li> </ul> </td> </tr> </table>	<b>정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㉕<b>군현제</b> 도입 :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각각 군수와 현령 등의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li> <li>•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국강병책(변법) 실시</li> </ul>
	<b>정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㉕<b>군현제</b> 도입 :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각각 군수와 현령 등의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li> <li>•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국강병책(변법) 실시</li> </ul>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b>경제</b></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경과 철제 농기구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 발전</li> <li>• 상공업의 발달로 화폐 유통 활발, 도시 발달</li> </ul> </td> </tr> </table>	<b>경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경과 철제 농기구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 발전</li> <li>• 상공업의 발달로 화폐 유통 활발, 도시 발달</li> </ul>
<b>경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경과 철제 농기구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 발전</li> <li>• 상공업의 발달로 화폐 유통 활발, 도시 발달</li> </ul>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b>사회</b></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력 중시 풍조에 따라 ㉖<b>제자백가</b> 등장</li> <li>• 철제 무기가 보급되면서 전쟁의 규모 확대, 전쟁의 양상 변화</li> </ul> </td> </tr> </table>	<b>사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력 중시 풍조에 따라 ㉖<b>제자백가</b> 등장</li> <li>• 철제 무기가 보급되면서 전쟁의 규모 확대, 전쟁의 양상 변화</li> </ul>	
<b>사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력 중시 풍조에 따라 ㉖<b>제자백가</b> 등장</li> <li>• 철제 무기가 보급되면서 전쟁의 규모 확대, 전쟁의 양상 변화</li> </ul>		



▲ 상과 주의 세력 범위



▲ 춘추 전국 시대

<b>진(秦)</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시황제 :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어 전국 통일(기원전 221) : 중앙 집권 체제 강화(최초로 황제 칭호 사용, 전국적으로 ㉕<b>군현제</b> 실시, 3공 9경의 관료제 시행) : 도량형·화폐·문자 통일, 도로망 정비, 사상 통제(㉗<b>분서갱유</b>)</li> <li>• 쇠퇴 : 만리장성 축조 등 대규모 토목 공사와 가혹한 법치에 대한 불만 → 진시황제 사후 진승·오광의 난 등 농민 봉기 발생</li> </ul>
-------------	---

요, 순 등이 스스로 성인(聖人)이라고 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의 시황제는 시호 짓는 법을 없애며 이르기를, “시호를 짓는 것은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행적을 논하며, 신하로서 군주를 의논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천하 사람들이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의 행적을 비난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천하 사람들이 자신더러 성인이라고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덕(德)은 삼황(三皇)을 겸하고 공(功)은 오제(五帝)보다 더하다.”라고 하며 마침내 칭호를 고쳐 황제라고 하였으니, 이는 스스로 성인이라고 한 것이다. - 『통감절요』 -

<b>한(漢)</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㉘<b>고조</b>(유방, 재위 기원전 202~기원전 195) : 진 멸망 이후 초의 항우와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중국 재통일(기원전 202), ㉙<b>군국제</b>(군현제 + 봉건제)</li> <li>• ㉚<b>무제</b>(유철, 재위 기원전 141~기원전 87) : 제후의 세력을 억제하고 군현 확대, 흉노 원정을 위해 월지에 ㉛<b>장진</b> 파견(기원전 139) : 소금·철 등의 ㉜<b>전매제</b> 실시, 상공업 통제 : ㉝<b>동중서</b>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중시</li> <li>• 왕망의 황위 찬탈 : 외척 출신으로 (전)한을 무너뜨리고 ㉞<b>신(新)</b> 건국 → 토지 국유화 등 급진적 개혁 단행 → 실패</li> <li>• 후한(25~220) : 신이 멸망한 후 호족의 지원으로 광무제(유수)가 건국(도읍 ㉟<b>뤄양</b>) : 외척과 환관의 대립으로 쇠퇴하다가 멸망 → 위·촉·오가 대립하는 삼국 시대 전개</li> </ul>
-------------	---

<b>흉노의 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 : 기원전 4세기 무렵 유라시아 북부의 초원 지대에서 성장</li> <li>• 발전 : ㉓ <b>목특 선우</b>가 동호를 정복하고 월지를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몰아냄 → 만리장성 이북의 초원 지대 통합</li> <li>• 정치 : 여러 부족을 통합한 연맹체 국가 형성 → 선우 아래 ㉔ <b>좌현왕</b>과 우현왕 등을 둠</li> </ul>
<b>고조선의 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립 :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성립, 제정일치</li> <li>• 발전 : 상·경·대부·장군 등의 관직 설치, ㉕ <b>8조</b>의 법 제정, 전국 7웅 중 하나였던 연과 대립</li> <li>• ㉖ <b>위만</b>의 집권 : 한 초기에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 →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기원전 ㉗ <b>194</b>)</li> <li>• 철기 문화의 본격적 수용, 한과 한반도 남부 지역 간의 중계 무역으로 번영</li> </ul>
<b>만주·한반도의 여러 나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 : 만주의 송화강 유역에서 성립</li> <li>• 고구려 : ㉘ <b>부여</b>의 일부 세력이 남하하여 압록강 유역에서 건국</li> <li>• 삼한 : 마한·진한·변한 성립, 농경 발달, 제정 분리</li> </ul>
<b>일본 열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원 전후 ㉙ <b>청동기</b>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정치체 등장</li> <li>• 3세기경 30여 개의 소국이 히미코 여왕의 ㉚ <b>야마타이국</b>을 중심으로 연맹체 형성</li> </ul>

### 03. 중원 왕조와 주변 국가와의 관계

<b>흉노와의 관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시황제 : 흉노를 초원으로 몰아내고 오르도스 지방 탈환 → 흉노의 재침을 막기 위해 ㉛ <b>만리장성</b> 축조</li> <li>• 한 고조 : 평성 ㉜ <b>백등산</b> 전투에서 목특 선우에 패배(기원전 200) → 흉노에 공물과 공주를 보내 화친(기원전 198)</li> <li>• 한 ㉝ <b>무제</b> : 흉노에 대항할 동맹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 : 대대적인 원정으로 흉노를 고비 사막 이북으로 몰아냄</li> </ul>
<b>베트남과의 관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둥·광시 지역을 중심으로 남비엣(남월) 건국(찌에우다, 기원전 203)</li> <li>• 한 ㉞ <b>무제</b> : 남비엣 정복(기원전 111) → 9군 설치</li> </ul>
<b>만주·한반도와 관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조선이 한과 한반도 남부 간의 중계 무역으로 번성</li> <li>• 한 무제 : 고조선과 ㉟ <b>흉노</b>의 연합을 막기 위해 고조선 정복(기원전 108) → 4군 설치</li> </ul>
<b>일본 열도와의 관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7년 왜의 노국왕이 후한 ㊱ <b>광무제</b>에게 조공하고 '한위노국왕'이라고 새겨진 금인을 받음</li> <li>• 239년 야마타이국의 ㊲ <b>히미코</b> 여왕이 위(魏)에 조공하고 '친위왜왕'이라는 칭호를 받음</li> </ul>

#### ●▶한 ㉝ **무제**의 대외 정책

황제께서 중국이 피폐하여 평안한 나날이 없음을 슬프게 생각하시고 비로소 대장군, 표기장군, 복파장군, 누선장군을 파견하여 남으로 백월을 멸망시켜 일곱 군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북쪽으로 흉노를 물리쳐 혼야왕 10만의 무리를 항복시키고 다섯 개의 속국을 설치하고 …… 동으로 고조선을 정벌하시고 현도와 낙랑군을 세우시어 흉노의 왼쪽 팔을 자르셨습니다. 또한 서쪽으로 대만을 격파하여 서른여섯 나라를 겸병하시고, 오손과 손을 잡아 둔황, 주취안, 장예의 세 군을 설치하시어 야강(婁羌)을 떼어 놓으시어 흉노의 오른팔을 잘라버리셨습니다.

- 『한서』 -